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신뢰행정 바탕 경제 성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광주시 복구

민선 5기 광주시 복구의 가장 큰 성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뢰 행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약 이행 3년 연속 최우수 위생매립장 조성 등 속제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복지 1번지로 거듭나는 중이다.

민선 5기 남은 1년간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임기 1년간 30개 공약 중 나머지 10개의 공약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원. 운영 등 위생매립장 환경생태공원 조성·보안 등 광원 교체사업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신도불이 지역복지 모델을 제시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는 통계청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책지도' 제작 등도 선진 정책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châm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민청배 광산구청장은 민선5기 3년간 "주민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이 진보"라며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생활·문화·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자치의 힘으로 더 좋은 삶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조장·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말하는 주민참여 행정의 중심에는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다. 광산구가 설립하고, 민간단체인 (사)마을두레에서 운영하는 이 센터는 주민 자치·참여 활동과 광산구를 잇는 중간지원 조직이다.

현재 '마을·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나 '협동조합 구성'과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의 폭을 왕성하게 넓혀가는 중이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광산구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정책들을 펼쳐 왔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2만 2000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신도불이 지역복지 모델을 제시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공동체'는 통계청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책지도' 제작 등도 선진 정책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châm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châm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침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침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침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침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침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동체'는 전국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5기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국정방

침으로 삼아 출발했다. 민 청장이 이끄는 광산구도 사람을 높이고, 배려계층을 챙기는 등 주민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을 중심으로 꾸준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광동 포사격장 이전부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형 자치공



한승원 칼럼

내가 스무 살 무렵 닭 70 마리쯤을 원 시적인 방법으로 모계 부화시켜 마당에 놓아 키웠다.

한 암탉이 첫 알을 낳는데, 품속에서 나온 알이 항문 입구에서 걸렸다. 항문이 기형이어서 크게 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 닭은 배고픔 때문에, 줄곧 동지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알이 담겨 있는 그 암탉의 항문은 불룩한 채 빨갭게 부풀어 있었다. 내가 붙잡아 참기름을 항문에 주입해주었다. 그런데 그 암탉은 분만을 하지 못하고 항문이 불룩해진 채로 모이를 주어 먹으려 다녔다.

한 암탉이 빨갭게 부풀 항문을 보고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한번 쏘았다. 처녀 닭은 도망가려다가 돌아와서 모이를 주워 먹었다. 그런데 다른 닭이 다시 쏘아 냈다. 처녀 닭은 또 피곤했지만, 이 닭도 쏘고 저 닭도 쏘았다. 상처 입은 처녀 암탉은 사력을 다해 도망을 치지만 다른

그 정권은 김대중에게 국가 전복을 도모한 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 뜻있는 사람들이 김대중 구명운동을 했고, 전두환 정권은 어찌할 수 없이 사형을 면해 주었다.

그 무렵 경상도 한 지역에서 묘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예극 열정과 충성심을 발휘하여, 자기 학교 전 학생들에게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 보내기로 했다. 내용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 빨갱이의 우두머리 김대중을 반드시 사형시킴으로써 다시 그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청원이었다.

5·16 쿠데타 이후 계속된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5년이 이어진 우리나라에는 '폭탄주 문화'가 만들어졌다. 맥주 한 컵에다가 알코올 40도의 양주 한 잔을 집어넣고, 그것을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 좌중의 권력자를 향해 빈 컵 속에 들어 있는 양주

다시 광기(狂氣)의 역사

닭들이 미친듯이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했다. 마침내 그 암탉은 피를 쏟은 채 죽어갔다.

40년 전 내가 한 여학교 2학년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을 갔다. 함께 간 교감선생이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한 선생, 여학교 처음이지요? 밤에 선생님의 반 아이들이 불려내면 나가시 마시오. 이상한 전풍이 있어요. 큰 방안에 온집한 아이들은 맥주와 과자 따위를 준비해 놓고, 담임 선생을 불러 모신 다음 대접을 하고 노래를 시키는데, 노래가 막 끝나면 누군가가 불을 꺼버립니다. 그 순간 둘러싸고 있던 아이들이 담임선생에게 덤벼들어 쓰러뜨리고, 힘센 아이들이 사지를 억누르고 몸 여기저기를 더듬어요. 담임 선생한테 유감이 있는 아이들은 꼬집어버리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쉬쉬 덮여 버렸어요."

그날 밤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내가 묵고 있는 방문을 두들겼고, 나는 자는 체하고 응대하지 않았는데 한없이 끈질기게 문을 두들겼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학급의 반장이 다녀간 것이었다.

그 7년쯤 후, 얼룩 무늬 군인들이 시민들과 학생들을 무차별 게 패듯이 패 죽인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이 성립되었다.

잔을 팔랑팔랑 흔들며 보이는 폭탄주 문화.

폭탄주 마시는 그 술자리의 권력자가 그만 마시자고 할 때까지 줄곧 광적으로 이어진다. 그 폭탄주 마시는 군대, 권력기관, 공공기업체 직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 전반으로 번져

갔다. 우리 역사 속에서 광기를 읽을 수 있다. 고려조에 무신들의 문신 죽이기, 조선조에 삼축을 벌한 당파 싸움, 정여립 사건을 만들어 정적들 1000여 명을 죽인 사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유배 보낸 사건, 해방 전후 시대 울로기 싸움으로 양쪽에서 무차별 살상한 사건들, 일본군과 관군이 합세하여 동학군의 뿌리를 뽑아 버린 사건.

지난 대선 때 작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문제 삼았던 몇몇 국회의원과 국경원 직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또 그것을 띄우고 있다.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설가>

내년 전남 SOC 확충 기대

국토부, 보성~임성 철도 200억 등 2조 2473억 반영

내년 전남지역의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이 기대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가운데 내내 SOC 사업비로 모두 2조 247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1233억원(5.8%)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년간 공사가 중단돼 최근 지역에서 재개 여론이 높았던 보성~임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에 200억원이 반영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을 포함해 내년에 철도 건설 사업비로 모두 1조6599억원이 투입된다.

또 이미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144억원도 반영됐다.

연륙과 연도교의 경우 여수~고흥간 920억원, 압해~압해간 새천년대로 294억원 등 5건에 1609억원을 확보했다.

국도와 국도우회도로 사업으로 화순~광주간 4차로 확장(207억원)과 군내~고군간, 남원~곡성간 국도 4차로 등 모두 26건에 2866억원이 반영됐다.

또 장성 나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20억원), 담양산단(7억원), 고흥 도양산단(9억원) 등 신규사업 3건을 포함해 산단 도로 건설사업도 8건(520억원)이 추진된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정부의 건설분야 예산 감축 분위기 속에서도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열악한 사회간접시설 인프라 구축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효석, 시도지사 출마 시동거나?

서울서 '광주·전남 네트워크' 모임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출마를 모색 중인 김효석 전 의원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주전남 미래구상 네트워크' 첫 서울 모임을 갖고 '뉴광주전남 플랫폼' 구상에 착수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 소외와 차별이 더욱 심해지면서 호남 출향인들이 고향을 숨기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호남인들은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사회에 문제점을 느끼고 공평한 사회를 바라고 있다"고 발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영남패권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 호남의 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광주·전남에 필요한 것

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다"며 "치열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광주·전남이 가야 할 길을 만들고 초안이 만들어지면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네트워크에는 이진순 전 KDI원장, 강원 서경대 초빙교수, 윤원배 금융위원회 부원장, 최양부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계와 학계·경제계·관계에서 활동 중인 광주·전남 출신 인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이 '전남의 현재와 밝은 미래 실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도 토론에 참여했다.

김 전 의원은 7월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광주전남 미래구상 네트워크' 출범식을 겸한 지역발전대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지역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Samhye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 삼희 공인중개사. Features: 모든 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법인소유물건, 지분소유물건, 미준공건물, 경매중인물건. Contact: (062) 234-1199.

Shinhan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 신한공인중개사. Features: 신축 원룸 매매 전문, 상가매매, 독서실 급매. Contact: (062) 527-7600.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 저렴한 고급별장. Features: 정남진 장층,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Contact: 011-642-7777.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 임대·급매매. Features: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Contact: 010-3605-7814.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 급매매. Features: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Contact: 010-3215-9969.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Features: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역4천.월3500만 매46억원. Contact: 010-3753-0033.